

## 미제의 《태평양국가》론과 그 위험성

김재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대조선정책은 미국의 아세아, 태평양전략의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87권 468페이지)

미제가 떠드는 《태평양국가》론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배야망을 로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침략론이다.

미제의 《태평양국가》론의 위험성을 철저히 간파하고 저지파탄시키는것은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지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미제의 《태평양국가》론을 저지파탄시키자면 그 반동적본질을 잘 알아야 한다.

미제의 《태평양국가》론은 국가형성직후부터 들고나온 양키조상들의 침략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국가형성직후부터 서부여로의 영토팽창을 적극 추진해온 미국은 19세기 중엽 태평양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한 다음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려는 침략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기 시작하였다.

1852년 12월 14일 미국 동인디아분합대사령관이였던 페리는 영국이 아시아에서의 식민지영토확장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는데 대처하여 미국이 시급히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상의 여러 섬들을 차지함으로써 아시아침략의 거점적기지들을 확보할데 대하여 떠들었다.

남북전쟁후 제국주의단계로 이행한 미국에서는 독점자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태평양제국》론이 크게 대두하였다. 그 사상적대변자가 이전 국무장관 윌리엄 헨리 시워드와 팽창론자 마한이었다. 이자들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을 지배하여야 할 《새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미국의 정치 및 경제활동의 더욱 큰 무대는 태평양지역》이며 《태평양상의 섬들과 그 연안의 광대한 영토는 세계의 광명한 래일의 주요 활동무대로 될것》이기때문에 《태평양과 아시아는 마땅히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주처럼 미국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 《태평양의 통치권은 반드시 미국에 속하여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제창된 《태평양제국》론은 본질에 있어서 태평양과 그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저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미국이 지배하는 식민지로 만들자는 것이였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태평양제국》론을 《태평양국가》론으로 바꾸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제패야망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운 미제는 《태평양제국》론을 실현하기 위한 무모한 길에 들어섰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과 나라들가운데서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할수 있는 관문이며 다리인 조선반도를 장악하는것을 첫째가는 목표로 내세웠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참패에서의 교훈을 망각하고 1960년대에는 《평화전략》의 간판밑에 태평양의 서남쪽에서 아시아대륙으로 뚫고 들어갈수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인도지나》전쟁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미제는 1970년대에는 《닉슨주의》, 《포드주의》 등을 내놓고 어떻게 하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틀어쥐려고 미쳐날뛰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배야망은 더욱 로골화되었으며 지난날 《태평양제국》론의 재판인 《태평양국가》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 레간은 《미국은 태평양국가이므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지역에 진출하여야 한다.》고 떠벌였다.

랭전종식후부터 미제는 《태평양국가》론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실현을 위한 책동에 미친듯이 달라붙었다.

1993년 7월 일본과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정책인 《신태평양공동체》구상에서 전통적으로 대서양중시정책을 추구하여온 미국이 지금부터 확고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하며 이 지역에 강력히 개입함으로써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지배권을 확고히 유지하려는 전략적요구를 드러내놓았다. 특히 미제는 최근에 들어와 미국이 《태평양국가》라고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2009년 일본, 남조선 등 아시아나라들을 행각한 미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태평양국가》로서 아시아를 보다 중시하고 아시아나라들과의 《협조》를 확대할것이라고 력설하였으며 2010년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은 미국회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아시아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떠들어대였다. 그리고 2011년 11월 미국무장관 힐러리는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한 강연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이른바 포괄전략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힐러리는 《21세기에는 세계의 전략적 및 경제적중심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갈것이 명백하다.》고 떠벌이면서 미국은 앞으로 외교 및 경제정책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둘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이해 11월 대통령 오바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미국의 통솔을 몹시 갈망하고 있다.》고 파렴치하게 떠벌이였다.

미제가 요란스럽게 제창하는 《태평양국가》론과 그것을 반영하여 들고나온 새로운 국방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태

평양국가》이므로 새 세기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전략적요구에 맞게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더욱 깊이 개입할뿐아니라 이 지역 지배야망을 핵선제공격으로 기어이 실현해보겠다는것이다.

미제의 침략적인 《태평양국가》론은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있다.

미제의 《태평양국가》론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침략전쟁론이라는데 있다.

조선반도에서 제2의 조선전쟁, 핵전쟁을 도발하여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는것이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첫째가는 목적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제의 전략에서 기본은 동북아시아를 지배하는것이다. 여기에서도 기본을 이루는것은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을 일으켜 조선반도전체를 지배하는것이다. 조선반도는 대국들의 지정학적교차점에 놓여있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얽혀있는 지대이다. 때문에 미제는 《태평양국가》론을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이고 리가 반드시 조선을 틀어쥐여야 하며 그 래야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의 로씨야의 진출을 가로막아 아시아 지배전략, 나아가서 세계제패전략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선 전조선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미제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미제는 조선반도를 장악하는데 운명을 걸고 공화국북반부를 핵선제공격방법으로 전조선을 강점하며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이 전략에 따라 조선반도를 열점지대로 만들기 위해 군사적도발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는 2010년 3월 남

조선피뢰도당을 부추겨 음모적인 《천안》호사건을 조작하고 제주도의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는 등 조선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침체화시켰다. 미제는 조선반도지역정세를 운운하면서 남조선피뢰군, 재침에 들뜬 일본반동들과 함께 조선반도와 그 해역의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수십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었으며 2011년 8월에는 10여일간에 걸쳐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남조선강점 및 해외주둔 미제침략군병력과 피뢰군을 포함한 무려 53만명을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과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미제침략군무력과 남조선피뢰군병력을 동원하여 2012년과 2013년에도 북침을 노린 핵선제공격전쟁도발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으며 뒤이어 또다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리었다. 또한 남조선과 일본에 미제침략군 《10만명 체제》를 항시 유지하고있으며 항공모함 11척중 6척과 각종 함선 200여척, 핵무기 6500여개 등을 전개하고있다. 그리고 조선반도《유사시》69만여명의 미증원공과견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침략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집중배비이동시키고있다.

미제의 북침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침체화되고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이처럼 미제의 《태평양국가》론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조선반도지역을 해외군사작전의 중심무대로 설정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룩해보려고 하는데 커다란 위험성이 있는것이다.

미제의 《태평양국가》론의 위험성은 다음

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이 지역 나라와 인민들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침략책동이라는데 있다.

침략과 전쟁에 이끌리 난 미제는 《태평양국가》론을 요란스럽게 제창하면서 1990년대 중엽부터 해외군사작전의 중심무대를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무장장비와 전투기술기재 등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배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제는 2012년에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중동과 유럽의 미군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배비한다는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미제의 전략적의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해외군사작전의 중심무대로 설정하고 군사적인 《힘》의 방법으로 이 지역을 저들의 지배와 통제밑에 넣음으로써 미국의 원료공급지,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자는것이다.

미제가 세계전략의 무대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설정한것은 우선 이 지역이 현시기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쏘미랭전시기 국제정치의 중심은 주로 이전쏘련과 미국을 두 극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이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대결하고있었던 유럽지역이었다. 그러나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중심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졌다.

이전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된 후에도 아시아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이 반제반미전선의 최전선에 서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그리고 《아세안》성원국들은 미국을 배제하고 자기식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하나의 완전한 지역공동체창설을 지향하여 나아가고있다.

반면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권과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고있다.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이며 대외정책담당 국장인 마틴 인디크는 한 연설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이상 초대국이 못된다.》라고 자인하였다.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전략적의의를 강조해온 미제는 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아시아지역과 태평양지역을 갈라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보아왔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태평양국가》로 내세우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획책하여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변화되고있는 사태발전이 계속된다면 미제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제는 최근시기 《태평양국가》론을 더욱 제창하며 그 실행을 위한 길에 들어섰다.

미제가 세계침략의 무대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설정한것은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전략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전례없이 커지고있는것과도 관련되어있다.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의 세기로 불리우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면적과 인구수에 있어서 세계 첫 자리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는 경제가 빨리 장성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체계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방대한 시장을 요구하는 미국독점자본가들의 탐욕을 더욱 자극하고있다. 특히 최근시기 들어와 미국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빠져 헤어나올수 없는 처지에 있다. 미행정부가 금융위기를 해소해보려고 여러가지 《비상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생산의 전반적인 침체와 감퇴, 회사들의 파산과 실업증대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예

산적자와 무역적자가 늘어나고있다. 이로 부터 미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적극 진출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타산하게 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풍부한 전략자원을 가지고있다. 페르샤만지역 나라들에는 700여억t의 원유, 22조m<sup>3</sup>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륙붕에는 막대한 량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으며 바다밑에는 20가지이상의 유색광물이 약 5 000억t이나 매장되어있는것으로 추산되고있다.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세계적으로 80%의 천연고무, 60%의 주석, 28.1%의 쇄돌을 생산하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전략자원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세계1극화야망실현을 위한 침략과 전쟁정책의 요구에 맞게 군수공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되어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통제권확보여부에 따라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의 승패가 좌우될것으로 보고있다.

미제는 령전종식후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감행한 침략과 전쟁, 간섭책동으로 하여 지출된 무모한 군사비로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군사적으로도 진퇴량난에 빠져있다. 반면에 새 세기에 들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전쟁억제력이 강화되고있다. 따라서 미제는 이 지역에서 달라진 전략적구도에 맞게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추종국가들로 새로운 군사빨력을 조작하는 한편 일부 나라들과 쌍무적, 다무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인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며 《경제적협력》, 《원조》의 허울밑에 저들에게 추종하는 나라들을 끌어당겨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있다.

미제의 《태평양국가》론과 그를 반영한 아시아태평양전략과 그 실행책동으로 하여 이 지역나라들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

---

되고 정치군사정세가 점점 복잡해지고있다. 또한 이 지역나라들이 군비경쟁에 말려들고있고 경제적발전에 일련의 장애가 조성되고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대국들사이의 대결양상이 심화되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의 《태평양국가》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침략과 전

쟁, 랍탈의 《론리》이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은 《힘》의 전략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적인 《태평양국가》론에 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